
국립국어원 소식

물음 >> ‘갈비집’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바른가요? ‘갈비 집’인가요?
‘갈비집’인가요?

(이선화,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답 >> 갈비를 파는 가게의 의미로 쓰는 경우, ‘갈빗집’으로 표기합니다.

2008년 10월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되어 ‘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이와 같은 쓰임이 없어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갈비를 파는 가게’의 의미로 ‘갈비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전에는 ‘갈비집’이라는 단어가 없고 ‘집’이라는 단어에는 ‘가게’의 의미가 없어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명사 뒤에 ‘집’을 붙여 쓰면 물건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가게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집’의 품사는 명사이나, 명사 뒤에 붙어서 합성어를 만들기도 하므로 ‘갈비집’처럼 붙여 씁니다.

그런데 명사와 명사를 붙여 합성어처럼 쓰는 경우, 한글맞춤법 제29항 사이시옷 규정을 적용하여 표기합니다. ‘갈비집’의 표준 발음은 [갈빚집]입니다. 뒤 음절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이 어문 규범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갈비를 파는 가게’라는 의미로 쓸 때는 ‘갈빚집’으로 표기합니다.

물음 >> ‘등용문’의 ‘용’은 한자가 ‘용 龍’ 자인데 왜 ‘룽’으로 적지 않고 ‘용’으로 적나요?

(박희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답 >> 한글맞춤법 제12항 [붙임4]에 해당하며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등용문’으로 적습니다.

한글맞춤법 제12항 [붙임4]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용문’은 잉어가 이곳을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중국 황허 강 중류의 여울목, ‘용문(龍門)’이라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등(登)’이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글맞춤법에 따라 ‘등용문’으로 적습니다.

물음≫ ‘바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이용해서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때, 대부분 ‘바뀌었다’를 줄여서 ‘바꿨다’로 말합니다. ‘가지었다’는 ‘가졌다’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바뀌었다’도 ‘바꿨다’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나요?

(김시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답≫ ‘바뀌었다’는 ‘바꿨다’로 줄여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가지었다’, ‘견디었다’, ‘다니었다’를 ‘가졌다’, ‘견뎠다’, ‘다녔다’로 줄여 쓰는 경우는 맞춤법 제36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ㅣ’ 뒤에 ‘-어’가 와서 ‘ㄱ’로 줄 적에 준 대로 적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흔히 줄여서 사용하는 말 중에는 표기가 가능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동사 ‘바뀌다’의 어간 ‘바뀌-’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활용한 형태입니다. ‘바뀌었다’의 준말을 사용하려면 ‘ㄱ’과 ‘ㄴ’의 준말 형태를 표시할 수 있는 음운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한글맞춤법 자모에 없는 글자입니다. 또한 한글맞춤법의 규정에도 ‘ㄱ’ 다음에 ‘어’가 올 때 줄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었다’의 준말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뀌었다’로 적고 [바뀌었따]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퀴었다’, ‘나뉘었다’, ‘사귀었다’, ‘지저귀었다’와 같은 단어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꿨다’, ‘나뉘다’, ‘사궤다’, ‘지저궤다’와 같이 줄여 쓸 수 없습니다.

물음≫ 환절기가 되면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쓰쓰가무시’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 표기할 때 ‘쓰쓰가무시’라고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쯔쯔가무시’라고 표기해야 하나요?

(심민경, 서울 양천구 목동)

답>> ‘쓰쓰가무시’로 표기합니다.

‘쓰쓰가무시’라고 하는 병은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쓰쓰가무시)의 유충이 사람을 물면 발병하는 급성 전염병입니다.

‘쓰쓰가무시’라는 말은 일본어 ‘恙虫病’에서 ‘恙虫(つつがむし)’을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쓴 것입니다. 외래어표기법의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에 따르면, 어중과 어두의 ‘つ’는 ‘쯔’나 ‘츠’가 아닌 ‘쓰’로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쓰쓰가무시’라고 적습니다.

물음>> 이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다음에 뵈요.’라고 썼더니 ‘뵈요’가 틀린 말이라고 하더군요. 어디가 틀린 건지, 또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궁금합니다.

(신성용,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답>> 요즘은 휴대 전화에서 문자를 보내 인사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 간편하고 빠르게 전달하려다 보니 맞춤법에 어긋나게 쓰는 예도 종종 생기는 듯합니다. 흔히 *‘다음에 뵈요.’라는 인사말을 쓰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고 ‘다음에 **봬요**.’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봬요’라는 말의 기본형은 ‘봬다’인데, ‘봬다’는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말의 어간 ‘봬-’에 ‘-’로 시작하는 어미 ‘-어, -어서, -어야, -었다’ 등을 붙이면 ‘봬어, 봬어서, 봬어야, 봬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각각 ‘봬, 봬서, 봬야, 봬다’와 같은 준말이 되기도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35항의 준말 규정에서는 [붙임2]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임2] ‘-’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내_ㄴ’으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뵘	뵈었다	뵘다
쇠어	쇄	쇠었다	췌다
췌어	췌	췌었다	췌다

‘뵈다’를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인사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미 ‘-아/어요’를 붙입니다. 이때 ‘-아/어요’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예컨대 ‘밥을 먹어요.’, ‘옷을 입어요.’, ‘손을 잡아요.’처럼 쓰입니다.

‘뵈다’의 어간 ‘뵈-’에 어미 ‘-어요’를 붙이면 ‘뵈어요’가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뵈어요’는 ‘뵘요’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에서는 줄어든 형태로, ‘다음에 뵘요.’와 같이 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용언이 어미 없이 어간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뵈어-’나 ‘뵘-’가 아닌 *‘뵈’로 쓸 수 없으므로 *‘뵈요’는 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요컨대 다시 만나자는 인사말, ‘다음에 뵈어요.’를 줄여 쓴 형태는 ‘다음에 뵘요.’로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물음 >> 어르신 여러분에게 “언제들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말인가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언제들 가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들’을 붙이면 꼭 ‘너희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로 모두 나보다 어른이라면 “진지들 잡수러 오세요”, “안녕히들 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선,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답 >> ‘언제들 가세요?’, ‘진지들 잡수러 오세요.’, ‘안녕히들 가세요.’에 쓰인 ‘들’은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이처럼 ‘들’은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구실을 하는 말로, 특별히 높임 표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윗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높임말을 선택해서 써야 하는데, ‘가세요’와 같이 ‘-요’로 끝맺는 ‘해요체’보다는 ‘가십시오’와 같이 ‘-십시오’로 끝맺는 ‘합쇼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언제들 가세요?, 진지들 잡수러 오세요, 안녕히들 가세요.’보다는 ‘언제들 가십니까?, 진지들 잡수러 오십시오, 안녕히들 가십시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의 높임 표현에서 남을 높이는 조건은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개인적 친분 관계 등 여러 가지인데, 때로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때로는 여러 조건이 얹혀 높임 표현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상대 높임법의 등급, 예를 들어, 합쇼체(아주높임), 하오체(예사높임), 하계체(예사낮춤), 해라체(아주낮춤), 해요체(두루높임), 해체(두루낮춤)에 따른 표현이 명확히 나누어져 높임이 실현된다기보다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나 상황 등이 개입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높임 표현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듣는 이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음 >> '추켜세우다'와 '치켜세우다'가 복수 표준어인가요? 그리고 '추어올리다'라는 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바지를 추어올리다'로 쓰고, '바지를 추켜올리다'로 쓰면 틀리는데, 칭찬할 때는 '추켜올리다', '치켜올리다', '추어올리다'를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이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답 >> '위로 치올리어 세우다.'의 의미일 때는 '추켜세우다'를 씁니다.

(예) 눈썹을 추켜세우다./얼른 몸을 추켜세우고는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한편, '치켜세우다'에도 '웃기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리다.'의 의미가 있어 예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바람이 차가워지자 사람들은 모두 옷깃을 치켜세우고 있었다./어른에게 눈초리를 치켜세우고 대들다니 버릇이 없구나.

바지를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나타낼 때는 '추켜세우다', '치켜세우다'를 쓰지 않습니다. 바지를 위로 끌어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위로 끌어 올리다.'의 의미를 가진 '추어올리다'를 씁니다.

(예) 바지를 추어올리다./그는 땀에 젖어 이마에 찰싹 눌러붙은 머리 카락을 손가락으로 추어올렸다.

또 '위로 솟구어 올리다.'는 의미로 '추켜올리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지를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나타낼 때에 '추켜올리다'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녀는 자꾸 흘러내리는 치맛자락을 추켜올리며 걸었다./그 총부

리 앞에서 두 손을 번쩍 추켜올린 채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첫 대면 당시의 기억이 언제까지고 새로웠다.

한편, '칭찬하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위 단어들의 쓰임을 살펴보면, '추켜세우다', '추켜올리다'는 '칭찬하다'의 의미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치켜세우다', '추어올리다'로 써야 합니다.

'치켜세우다'는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추어올리다'는 '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 한때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운 적도 있었다. 그 애는 조금만 추어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정리를 하면, '바지를 올리는 것'을 나타낼 경우는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를 쓰고, '칭찬'을 할 때는 '치켜세우다', '추어올리다'를 씁니다.

그리고 '치켜올리다'는 '추켜올리다', '추어올리다'의 북한어로, 표준어는 아닙니다.